

2024년 2월 25일. 25 February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In the Lord I take refuge; how can you say to my soul,  
“Flee like a bird to your mountain,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for behold, the wicked bend the bow; they have fitted their arrow to the string  
to shoot in the dark at the upright in heart;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his eyes see,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an.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The Lord tests the righteous,

but his soul hates the wicked and the one who loves violence.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Let him rain coals on the wicked;

fire and sulfur and a scorching wind shall be the portion of their cup.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For the Lord is righteous; he loves righteous deeds; the upright shall behold his face.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2024년 2월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시며,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 구속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둠의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써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전 밖으로

#### Out of the Temple

Acts 21:27-36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When the seven days were almost completed, the Jews from Asia, seeing him in the temple, stirred up the whole crowd and laid hands on him,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crying out, “Men of Israel, help! This is the man who is teaching everyone everywhere against the people and the law and this place. Moreover, he even brought Greeks into the temple and has defiled this holy place.”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For they had previously seen Trophimus the Ephesian with him in the city, and they supposed that Paul had brought him into the temple.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Then all the city was stirred up, and the people ran together. They seiz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and at once the gates were shut.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And as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word came to the tribune of the cohort that all Jerusalem was in confusion.

32.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He at once took soldiers and centurions and ran down to them. And when they saw the tribune and the soldiers, they stopped beating Paul.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Then the tribune came up and arrested him and ordered him to be bound with two chains. He inquired who he was and what he had done.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Some in the crowd were shouting one thing, some another. And as he could not learn the facts because of the uproar, he ordered him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And when he came to the steps, he was actually carried by the soldiers because of the violence of the crowd,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for the mob of the people followed, crying out, “Away with him!”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모든 선교를 마치고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교회에 돌아온 그가, 일주일째 걸쳐 유대인의 결례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죄목으로 붙들렸습니다.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법(Temple Law)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the Jews from Asia)이 주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they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그들이 바울을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 문들이 닫혔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간 것입니다. 성전 문은 그를 대항하여(against him) 굳게 닫혔습니다. 바울이 자기 발로 걸어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바울은 유대인 무리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어 거기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때 천부장(the tribune)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When the seven days were almost completed, the Jews from Asia, seeing him in the temple, stirred up the whole crowd and laid hands on him,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정결예식(purification)에 참여했습니다. 그 정결예식 일주일의 거의 찻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바울의 선교일정을 파악하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들”(who have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ve killed him) (사도행전 Acts 23:21)이 사십 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crying out, “Men of Israel, help! This is the man who is teaching everyone everywhere against the people and the law and this place. Moreover, he even brought Greeks into the temple and has defiled this holy place.”

그들은 유대인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도우라!” Help!

그러면서 “거짓증언”(false testimonies)을 실시했습니다. 곧, 바울과 그 일행은 각처에서 1. 우리 백성(the people), 2. 율법(the law), 3. 이곳, 곧 성전(this place, the Temple)을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헬라인, 곧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defiled the holy place)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그 법을 범했다는 주장입니다.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For they had previously seen Trophimus the Ephesian with him in the city, and they supposed that Paul had brought him into the temple.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Luke)는 전후 사실을 해명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Trophimus the Ephesian)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in the city)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데리고 성전의 유대인 구역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선동했고, 백성들은 사실여부를 확인절차 없이 흥분했습니다.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Then all the city was stirred up, and the people ran together. They seiz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and at once the gates were shut.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the city was stirred up).

백성들이 달려와 모였습니다. 바울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울은 사람에게 붙들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they dragged him out).

곧 문들이 닫혔습니다(the gates were shut). 바울의 뒤로!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And as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word came to the tribune of the cohort that all Jerusalem was in confusion.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 그가 주도하여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tribune of the cohort)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all Jerusalem was in confusion)는.

32.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He at once took soldiers and centurions and ran down to them. And when they saw the tribune and the soldiers, they stopped beating Paul.

천부장이 군인(soldiers)과 휘하의 백부장들(centurions)을 거느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천부장(the tribune)과 군인들(soldiers)을 보자,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멈추었습니다.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Then the tribune came up and arrested him and ordered him to be bound with two chains. He inquired who he was and what he had done.

천부장(th tribune)이 볼 때, 일단 바울은 "혐의자"(a suspect)입니다. 우선 판단이, 그는 예루살렘 소동을 빌미를 제공한 자였습니다.

해서 그는 "바울을 두 쇠사슬로 묶으라!"(he is to be bound with two chains)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 그가 누구인가(who he was), 2.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what he had done), 심문했습니다.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Some in the crowd were shouting one thing, some another. And as he could not learn the facts because of the uproar, he ordered him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기도 전에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천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부장은 그를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고 명령했습니다.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And when he came to the steps, he was actually carried by the soldiers because of the violence of the crowd,

바울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무리들이 계속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성난 이리 떼 같은 무리인가!

천부장의 군사들은 바울을 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들어 올렸습니다(the soldiers carried him).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for the mob of the people followed, crying out, "Away with him!"

백성의 무리는 천부장이 있고 군대가 그 실력을 행사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외치며 따랐습니다. "바울을 죽이자(away with him)!"

오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전을 "교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중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중국은 교회를 공산당 정부가 개입하여, 사실상 주권을 행사합니다. 교회도 허가를 받아야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목사안수도 목사관리도 모두 공산당 종교국이 담당입니다. 아니면 불법입니다.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교회가 되어야 하고, 안수 없는 목사는 불법목회자입니다. 해외에서 신학공부 하고 목사안수를 받아도 중국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도 교회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당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규대학 졸업장 없으면 누구도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로부터 추방당하여, 그의 뒤로 교회 문이 걸려 잠기는 경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독재국가의 교회가 그렇다면,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번영을 원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서 다수라면, 복음에 선 소수는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성전 밖으로 이끌려 나가고, 문들이 곧 닫힌 장면을 읽다가, 문득 시편 11편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In the Lord I take refuge;

how can you say to my soul,

"Flee like a bird to your mountain,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for behold, the wicked bend the bow;

they have fitted their arrow to the string

to shoot in the dark at the upright in heart;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his eyes see,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an.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The Lord tests the righteous,

but his soul hates the wicked and the one who loves violence.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Let him rain coals on the wicked;

fire and sulfur and a scorching wind shall be the portion of their cup.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For the Lord is righteous;

he loves righteous deeds;

the upright shall behold his face.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조롱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조롱하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십니다. 하늘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뵈는 예배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gate in order to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히브리서 Hebrews 13:1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러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Therefore let us go to him outside the camp and bear the reproach he endured.

히브리서 Hebrews 13:13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Matthew 16:24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을 받습니다. 안팎으로 위협이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차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문제는 성전의 부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의 부정과 부패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모독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But they found none,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At last two came forward, and said, "This man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to rebuild it in three days."

마태복음 Matthew 26:60-61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사흘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갇혀 진정한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죄목도 결국은 "성전모독죄"였습니다. 드로비모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Temple)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the Word)과 달리 궁극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은 성경말씀을 제외하고 성전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누구며,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쫓아낸 예루살렘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인종에 집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며, 오늘까지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오니즘"이며 "시오니스트들"입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Israel)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Jerusalem)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가하는 핍박은 비성경적이며, 오히려 정치-경제-군사적인 것입니다. 이들의 핍박을 성경은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모든 사상과 모든 무리를 다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의지하며,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집착하여, 저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줄 알면서도, 저들을 우상처럼 받드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래도 비판의 날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급기야는 교회 안에 파고든 모든 불의와 부정을 개혁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바른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위협이 거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경우 당할 고난도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생각에 고난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Now I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r sake, and in my flesh I am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that is, the

church.

골로새서 Colossians 1:24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섰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Blessed are you when others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utter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falsely on my account.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so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마태복음 Matthew 5:11-12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길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성문 밖으로.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